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농촌진흥청 | 동정 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 배포 2026. 11. 20.(금)

제주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위한 기술 지원 방향 논의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일 서귀포서 과수 재배 청년농업인들 만나

- 재배·판매 상담 이후 현장 적용 상황 살피고, 정착 지원 수요 파악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장 재배 관리와 작물 생육 상황을 살펴봤다. 이어 청년농업인들을 만나 영농 초기 재배 기술과 판매처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들었다.

청년농업인(후계농) 2명은 지역 청년 4-에이치(H) 회원이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똑똑 청년농 앰버서더*' 1기로 활동하고 있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청년농업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예특작 분야 청년농업인 22명을 「똑똑 청년농 앰버서더」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

한 농가는 카라향을 재배, 공동선별·출하하고 있으며, 다른 농가는 노지 감귤을 생산해 온라인으로 직거래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초청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배 관리와 판매 전략 상담(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배 측면에서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작은 크기의 과일을 생산·관리하는 방안과 판매 측면에서 자체 온라인몰 취급 품목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받기도 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원장은 전문가 제안의 현장 적용 상황과 고충을 듣고, 영농 정착과 판로 확대에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김 원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려면 농장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을 익히고 생산과 판매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며 “현장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필요 기술이 농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2월 2일 ‘똑똑 청년농 앰버서더’ 성과공유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알리고,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20명을 추가 위촉해 ‘미래농업 청년포럼’을 조직하고, 청년농업인 공통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함께 풀어갈 예정이다.

붙임. 제주 과수 청년농 현장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남수 (063-238-6400)
		담당자	연구사	유홍규 (063-238-64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주 과수 청년농 현장 방문 계획(안)**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1:00	60	○ 만감류 카라향 재배 **청년농 현장방문**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74-4 (카라향 농가에서 농업인 2명 면담)	기술지원과장 유홍규 연구사